

현대불교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탱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고령을 크게 서비스는 명당
빅맨평생통장

● 대금 거래 일회 1년에 최고 10억원까지 가능
● 10년이상 거래시 연 10%까지 특혜
● 연 10%까지 특혜
● 연 10%까지 특혜

국민은행

영예회장 노태환 / 발행인 김관집 / 편집장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1년(서기 1997년) 5월 13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제 127 호

흔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이미 옛말이 되었으며 오늘날은 "인생은 길고 예술도 또한 길다"라고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 사회는 변화가 적은 단조로운 사회였기에 인생이 짧게 느껴졌으나 오늘날의 사회는 과거의 50년, 100년간의 변화가 1년 정도의 변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생이 길게 느껴진다.

내가 어릴 때 일을 회상하면 그것은 마치 역사 소설에 나오는 조선조나 고려시대의 일로 착각하게 된다.

초등학교 4학년때 전등불을 처음 보았으며, 어릴 때 단발머리의 여성을 신기하게 바라보았고,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행사

발상 위에 있는 쌀밥 한그릇에 군침을 삼켰는데 오늘에 와서는 TV 없이도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성의 향연에 무감각 해졌으며, 갈비를 플레스테일이 많다고 기피하게 되었다. 이 얼마나 큰 변화인가?

이렇게 사회가 급격히 달라지는 오늘날은 과거에 비해 장외할 일도 더 많아진다. 과거에는 어떤 문제에 부딪치면 그것의 해결방법을 선대의 지혜에서 찾았지만 오늘날은 선대에서 경험하지 못하였던 새

미래준비 '오늘 참회'에서

로운 문제가 허다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부딪친 문제를 잘못 해결하는 수가 많아졌다.

그러나 나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를 꿈꾸지도 않는다. 장차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고 구상해 본 일도 별로 없다. 내에게는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오늘은 과거의 종착역이며 미래의 출발역이기 때문에 오늘에 과거와 과(果)가 깃들여 있으며 미래의 인(因)이 배태(配胎)되어 있다.

흔히 참회를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참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옛날식 참회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장차 저지될지도 모를 잘못은 과거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회가 격심하게 변화으로 길게 느껴지는 인생의 여정에서의 참다운 참회는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다만 오늘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나의 참회의 다짐이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구독료납부 은행지모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apia.com

대학생 불자 마음다스리기 주력

현대불교, 대불련 '신행의식' 조사 "자의로 불교귀의" 60.4%

"개종 생각해본적 없다" 80.7%

불자대학생 10명 중 6명은 자의로 불자의 길을 선택했으며, 절반이상(60.1%)의 학생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신행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80.7%가 개종을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응답해 불교인으로서 강한 자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의 후원으로 4월15일부터 5월6일 대불련 23개 지부 173개 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불련 신행의식과 운영현황'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관련기사 6~7면)

불자대학생의 주된 신행활동은 법회참석(34.7%)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명 중 6명(62%)은 수



"노란연등... 복동포에 佛恩을"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들은 굿주리는 복동포들을 위해 지비보시의 노란 연등을 밝히고 있다. 하부속히 기아에서 벗어나길 기원하면서. <정도교묘원=고영배 기자>

"초파일 남북불자 한목소리 낸다"

첫 공동 봉축 발원문 봉독키로 조불련, 남북 불교대표 회담 제의

14일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남북한 불교도가 분단 이후 최초로 남과 북에서 동시에 '공동발원문'을 봉독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월주)과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은 부처님오신날 공동발원문을 확정하는 한편 남북 대표자회담이 논의되고 있다. (남북공동발원문 22면)

조계종 총무원장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발원문은 남북 식량 지원을 위해 4월 13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실무자회담에서 초안을 북측에 전달하면서 시작돼 수정안을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며 "6일 조불련이 최종안을 보내줌으로써 확정됐다"고 밝혔다. 봉축 공동발원문은 지난해에도 북측이 제의해 왔으나 의견차이로 무산됐다. 공동발원문은 "분단의 가슴

시청앞 아기부처님 '통일염원'



"남북 종교인연대 통일 준비하자"

전불련 정책토론회
통일 이후 남·북한간의 이질감 해소와 갈등극복에 종교가 중요역할을 차지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이를 위한 남북 종교인간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선)은 6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민족통일과 불교'라는 주제로 제3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경란 씨(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는 '독일통일과정에서의 교회의 역할'이란 발제문을 통해 "동서독 교회는 분단 40년동안 지속적 교류를 통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통일후의 혼란 속에서도 가장 먼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었다"며 "그러나 남북 종교인들은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점을 인식하고 종교적 교류를 통한 연대활동 및 대화와 협력을 통해 동질성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분단이 가져다준 비정상적인 삶과 역사속에서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기 위한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28면 발행			
석가모니불 전생 500대원	24·25면	부처님 미소 닮고 싶어요	21면
100세 문성스님 수행한담	10·11면	각종단 봉축법어	22면
원로스님의 시국 해법	3면	신도회장들의 발원	23면
머느리 3대 지비행	9면	태봉부대 신행현장	27면
선재들의 법명이야기	17면	사찰이 변하고 있다	19면

얼굴을 알리기보다는 기술을 알려 온 기업 - 효성중공업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배대산업.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꼭 있어야 할 중추산업.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이자 원동력입니다. 지난 35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묵묵히 이끌어 온 효성중공업. 멈추지 않는 도전의식과 기술창조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21세기를 실현해가겠습니다.

효성중공업, 알고보면 가까이 있습니다

<p>전력사업부</p> <p>전력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전력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p>	<p>기전사업부</p> <p>기전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기전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p>	<p>자동화사업부</p> <p>자동화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자동화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p>	<p>건설사업부</p> <p>건설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 건설사업부에는 다양한 사업분야가 있습니다.</p>
--	--	---	--